

# 나주 영강·영산·이창 권역 '영산포읍' 환원 길 열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45년 만 통합 법적근거 마련  
경제 혜택·행정편의 제공 기대

나주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등 영산포 권역 3개 동이 45년 만에 다시 ‘읍(邑)’으로 환원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정체성 회복은 물론 농촌 지역 특례 혜택 확대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을 위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는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숙원사업이었던 영산포읍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호남의 물류와 상권 중심지였던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후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현재는 영강·영산·이창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쪼개져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영산포 권역은 사실상 농촌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류된 탓에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부여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

농촌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3개 동의 인구를 합쳐도 8천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읍 환원 추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행정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개정 법령에 발맞추어 후속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옛 영산포의 역사적 자긍심을 45년 만에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영산포가 나주를 넘어 호남의 중심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 강진향교, 전통 품은 복합 문화공간 ‘탈바꿈’

郡·문화원, ‘품생품사’ 프로그램 성료  
전통·현대 조화...콘서트·보드게임 등

조선 시대 교육의 산실이었던 강진향교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인문·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활기찬 복합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문화원과 공동 추진 중인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품생(生)품사(士) 강진향교’ 프로그램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운영됐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강진향교 일원에서는 강진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향(강진향교) 콘서트’와 ‘다산 지성 프로젝트’가 열렸다.

첫날 진행된 ‘강향 콘서트’는 다소 엄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향교 공간에 현대적 감성을 입힌 이색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지역 예술단체의 국악 공연을 비롯해 매지컬 마술쇼, 참여형 미션 게임, 친환경 실천 체험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콘텐츠가 펼쳐져 전통문화에 대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진행된 ‘다산 지성 프로젝트’에서는 강진문화원이 자체 개발한 ‘빙고(BINGO) 정약용’ 보드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강진군과 강진문화원이 공동 추진한 ‘품생(生)품사(士) 강진향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다산 선생의 철학과 삶을 흥미롭게 배우고, 캘리 공기정정 초 만들기 등 친환경 인문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빙고 정약용’ 교구재는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높게 평가받아 ‘2025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국가유산정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행사에서는 운영현 강진향교 전교와 김기조 유도회장이 향교의 깊은 역사와 생활

속 유학 정신을 친근하게 들려주며 의미를 더했다.

박종민 강진문화원장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은 지역의 훌륭한 전통문화와 인문 정신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다산의 철학과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맞춤형 체험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함평군 ‘봄맞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모악산 치유센터서 원예 힐링 등 지도

함평군은 봄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일상 속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모악산 치유센터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맞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스트

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일과 주말로 나눠 분야별 전문가의 세심한 지도로 진행된다.

평일인 매주 수요일에는 원예치유지도사의 진행 아래 ‘반려동물 테라피움 만들기’와 ‘꽃 디지털 힐링’ 프로그램을 교차 운영하며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일상 속 소소한 여유를 선사한다.

주말인 매주 토요일에는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숲속 치유가 펼쳐지며, 모악산의 풍부한

한 산림 자원을 적극 활용한 소리 치유, 운동 치유, 물 치유 등 다채로운 명상·휴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원예·산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영규 기자

## 목포 부흥동, 온정 나눔

가정의 달 맞아 92가구에 후원품 전달

목포시 부흥동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하며 훈훈한 지역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부흥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부흥동 E-U사업’의 일환으로 ‘함께·나눔·기쁨’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심시일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박병국 주민자치위원장 이 선령당 46개, 김재웅 지사협 위원장이 타월 130개를 쾌척했다.

또한 이진형(미소소화기 46개), 김선화(반려식물 46개), 김희정(카네이션 50개) 위원 등 지역 인사들의 정성 어린 릴레이 기부가 이어졌다.

다. 기탁된 후원 물품은 맞춤형 세트 구성돼 관



내 어르신 92가구에 전달됐으며, 통장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지사협 특화사업인 ‘반려식물 지원사업’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까지 섬세하게 도왔다.

박병국·김재웅 위원장은 “작은 나눔이 어르신들께 건강과 행복으로 전해져 주민 모두가 가

족처럼 끈끈하고 따뜻한 동네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중 부흥동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온정 넘치는 부흥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해남군, 장립종 쌀 전용 도정 설비 구축

연간 최대 6천t 생산 규모

쌀알 부서짐 등 단점 보완

해남군은 부서짐 현상 등 기존 도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장립종 쌀 전용 도정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해남군,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년간 약 7억5천만 원을 투입해 시간당 3t, 연간 최대 6천t 생산 규모의 장립종 전용 도정 설비를 최근 완공했다.

장립종 쌀(사진)은 알이 길고 찰기가 적어 일반 도정기를 사용할 경우 쌀알이 부서지는 ‘짜라기’가 다량 발생해 수율이 낮아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전용 설비는 이러한 단점을 완벽히 보완해 고품질 원료곡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군은 도정된 쌀을 활용해 소포장 상품과 즉석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박람회와 지역축제, SNS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내산 장립종 쌀의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앞서 군은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2023년부터 간척지를 중심으로 장립종 재배를 100ha까지 확대해 왔으며, 세계 쌀 유통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장립종 시장은 아시안 푸드 열풍 등에 힘입어 매년 10% 이상 성장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전용 도정 설비 구축은 해남군이 국내 장립종 쌀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으로 쌀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영암 백룡산 6.1km 구간 ‘사계절 특화림’ 조성

청단풍·동백나무 등 식재

2028년까지 명품 숲길 완료

영암군은 10일 “지역 명소인 백룡산 숲길 일대에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백룡산 기존 천연림에 계절별 수목을 더하는 경관 특화림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백룡산 숲길은 평탄한 지형과 울창한 숲을 자랑하며 지난 2023년 전남도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지난해 숲길 일원에 산뽕나무와 홍단풍, 애기동백 등을 심은 데 이어 올해는 청단풍과 동백나무, 산뽕나무 등을 추가로 식재하며 숲의 생기를 더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6.1km 구간에



절친 사계절의 색다른 풍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명품 숲길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최진석 산림휴양과장은 “기존 숲길에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에 다양한 수목을 입혀 백룡산만의 특색 있는 숲길을 만들고 있다”며 “군민과 방문객 누구나 사계절 내내 자연의 변화를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품품히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신안군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 도입

작업자 직업성 질환·사고 예방 기대

신안군은 10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 1대를 지도읍사무소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소 차량은 지면과 운전석, 조수석 사이 발판이 높아 승하차 시 근골격계 부상과 낙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번에 도입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로 운전석과 별개의 전용 탑승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압축달걀, 유압 안전장치, 5배율 외부작업 확인 카메라 등을 갖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군은 전통시장, 수산물유통센터 등이 밀집해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많은 지도읍부터 배치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추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고질병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청소장비 현대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